전국 최초 불교환경대학 문연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4월 15일 개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08년부터 환경교육 진행
실천 운동, 학교 등서 병행
스님과 전문가 강사로 구성

빛고을 광주에 전국 최초의 불교환경대학이 개설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삼임대표 무등)는 4월 15일부터 12월까지 광주 양림동 소재 나무숲센터 3층 강당에서 불교대학 형태의 '제1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8개월간 진행하는 녹색불교아카데미는 전체 2학기로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불교의 교리, 하반기에는 불교와 환경,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강사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매월 1회 전문강사의 특강을 통해 심도깊은 환경 이슈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등 스님은 초대의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멈추게 했다. 이는 개발과 발전이 좋다는 미망, 인간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다"며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中道)의 가르침과 연기(緣起)의 가르침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녹색불교아카데미'를 개설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환경의 해법을 찾아가는 삶을 길을 모색하고 '지금여기 녹색불교'를 실현해가고자 한다"고 개설의 의미를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불교환경대학을 개설하고 제1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지역 불교단체의 한계를 넘어 환경운동단체로서 모범적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2020년 2월 현재 양림동 펭귄마을에 나무숲센터을 개관하면서 전문교육관인 그린담마홀, 청소년환경교육센터, 옥상에 나무숲 텃밭을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해모 운영위원장은 "환경운동이 인간중심의 방식에서 인간과 환경이 한 몸임을 깨닫고 삶을 보다 단순화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제 환경운동의 중심에 불자들이 해야한다"며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 불교환경대학은 강사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님들로 구성됐다. 무등 스님, 상진 스님(광덕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수월 스님(원효암 주지), 담준 스님(선덕사 주지)이 불교교리와 부처님 일생 등을 강의하며, 천도 스님(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혜오 스님(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법일 스님(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용묵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 등이 다양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가수 이현미, 김익중 명예교수(동국대 의대), 법인스님(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유정길 소장(녹색불교연구소), 조길예 명예교수(전남대), 정봉남 시민참여팀장(광주시교육청), 최지현 정책실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매월 특강을 진행한다.

금산사, 수현사 법당건립 추진한다

조계종 제17교구(교구장 일원, 금산사 주지) 교구종회가 3월 5일 수현사 3층 대법당에서 교구종회의원 스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개최, 도법스님 대종사 추대, 수현사 법당 건립불사, 기타토의 등이 상정됐다.

이어 완주 화암사 주지 방착 스님,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 자명사 주지 행심 스님과 금산사 사회국장 우림 스님에게 임명장이 전달됐다.

새해 예산 심의에서는 승려복지기금이 별도로 신설돼 교구스님들의 병원비,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대종사에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또 교구종회서는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평 규모의 법당을 건립하는 불사를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 확정

4월 17일 기원탑 점등시작 5월 15일 연등축제



전북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4월 17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의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덕진공원 어린이큰잔치, 5월 15일 전북도청광장 연등축제, 행복바라미축제로 전개된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는 3월 5일 전북혁신도시 수현사 3층에서 봉축위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결과를 결정했다.〈사진〉

전북불교회관 이영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봉축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일원 스님과 진성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총무국장 화평 스님, 태고종 도홍 스님, 보문종 지용 스님, 용화종 용성 스님 등 전주 완주지역 사암 스님들과 금산사 신도회 이근재 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신도 및 포교단체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봉축위원장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연등회가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첫해여서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결하는 행사는 개최하기 어렵더라도, 장엄만큼은 더욱 신경을 써서 지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위로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봉축위는 각 지역의 합창단이 참가하는 전북연합합창제와 6탄약창 연등제와 전북경찰청 위문법회도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5월 29일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마지막 봉축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봉축행사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대규모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참신하고 시민들에게 호평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려울수록 부처님 가르침 공부를"

전북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전북불교대학이 '제34기 불교학과 및 제29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 '제34기 불교학과 및 제29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7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입학식은 개회, 삼귀의, 연혁보고, 입학허가선언, 입학생선서, 입학식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구 학장을 비롯해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 김인석 회장, 전법사회 태기준 회장과 80여 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서 이창구 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부처님의 법을 배우러 많은 분들이 오셨다"며 "전북불교대학은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학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불교대학 백준기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30여 년 전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전북불교대학에서 내면의 세계를 잘 관찰하시고 모두가 부처님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선사, '전통다도원' 창립총회…다례 계승 첫발

3월7일 창립기념식 · 총회 개최
다도반 승격…강사 선발 시험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가 기존 다도반을 승격한 형태의 전통다도원을 창립했다. 전통다도원은 향후 전통다례 계승 및 다인 양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남양주 봉선사는 3월 7일 경내 일승원에서 '봉선사 전통다도원'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총회와 창립기념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강사 선발식을 통해 전통다도원 다인을 양성하기 위한 토대도 구축했다. 전통다도원은 2006년부터 교구 내 말사에서 이어져 온 다도반을 교구조직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봉선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전통다례 계승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다도원은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을 총재로, 문화원장 오봉 스님(석굴암 주지)을 지도법사로 운영된다.



창립법회는 초격 스님과 오봉 스님, 김미려 다도반 회장을 비롯한 강사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훈래 문화특보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재 초격 스님은 "비불교인들도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

사찰 입장료 폐지를 통해 지역민들과의 상생협약을 했던 천은사가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리산 천은사(주지 종효)는 3월 6일 천은사 입구에서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힐링과 휴식의 공간을 개관했다.〈사진〉

천은사는 지난 2019년 4월 산문개방과 함께 8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리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천은사 안전운영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조성사업은 45억원(국비 25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천은사 입구 저수지 무장애 수변데크(3.3km), 숲길 탐방로를 비롯해, 수변찻집, 휴게소 리모델링을 통해 천은사 문화유적과 산림자원을 시민들의 힐링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준공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종효 스님, 김영록 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스님들과 100여명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